

은빛 요양원
 풍요로운 노후의 삶을 도와드립니다

1호선 블루리지
2호선 시어리지

풍부한 경험과 수준 높은 전문가 서비스
 가정 같은 또 하나의 생활공간
 간호, 간병, 전문 재활치료
 한국문화 정서와 여가 활동

한국어 직통
732.770.0609
 www.은빛요양원.com

헤럴드 기어 변호사
HAROLD J. GERR
 Attorneys at Law

자동차 혹은 트럭사고,
 허추나 디스크에 관한 된 사고,
 공사현장 사고, 배기 부러진 사고,
 범죄로 희생양이 된 사고,
 각종 상해, 사망사고

1-877-249-4600
 47 Raritan Ave. Highland Park, NJ

16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

준 플턴 부동산
 908-295-7053

준 플턴 플턴
 Sales Associate
 Re/Max Instyle Realty
 june@instyle Realty.com

1178 Route 206 Suite 202, Skillman, NJ 08559 june@instyle Realty.com

KWIK
킵 모기지
 주택융자, 상용건물, SBA융자

타 은행에서 융자 거부된 분 상담
 Gabriel B Park (NJMLS 1161224) Senior Loan Officer
Direct (908) 293-2215
 gspark@kwikmortg.com / Licensed NJ NY PA CA FL CT MD VA TX

VESTA-OH
 Kitchen & Bath Renovation

부엌, 욕실 전문그룹

오영문 토마스 | Tel: 917-992-9353 | kitchenoh@hotmail.com

은퇴플랜 및 재정설계 컨설팅
 Advisors U Trust, LLC

401k, IRA, Annuity (개인연금)
 생명보험, 메디케어 & 건강 보험
 자동차 주택 건물 비즈니스 보험

박가브리엘 (732) 865-1597
 Licensed in NJ & NY
 advisorustrust@gmail.com

메디케어 무료 상담
 올바른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박미원
 Independent Licensed Agent
 908 655 5339

이문식
 검안과
 Family Vision Center

Dr. Douglas M. Lee, Optometrist
 각종 안질환 치료
 컴퓨터 증후군 및 눈내장 치료
 검안 및 시력 교정
 아동 시시 치료 및 시력 교정
 콘택트렌즈 및 안경 맞춤

P. 732-393-1210
 1734 Lincoln Hwy(Rt.27)
 Edison, NJ 08817
 에디슨 H-mart 앞

에디슨 현대정비 Hyundai auto repair
 수리 정비
 Auto Repair - Service

김도형 (Philip Kim)
 C/P : 732-853-5696
 Tel : 732-543-1110
 1808 Woodbridge Ave. (Rt.514)
 Edison, NJ 08817

BOYLAN
 Funeral Home

Edison 732-572-0076

ND EAST BRUNSWICK
 NEW IMAGE DENTAL LLC

444 Ryders Lane
 East Brunswick, NJ 08816
 Tel. 732-432-8388

J. Woo DDS

강준한의원
 (732) 287-8881

1734 Lincoln Highway Rt.27, Edison
 에디슨 H-Mart와 학장 이진

진료 안내
 한의 내과
 신부인과
 소아과
 통증과
 교통사고 후유증
 각종 한약(보약, 치료약)
 침, 뜸, 부항
 중국 전통의 지압

HONORS REVIEW East Brunswick

SAT, ACT, APs, Enrichment Programs
 우성현 스테파노 732-254-3349
 3 Lexington Ave East Brunswick NJ 08816

성지순례, 단체관광, 크루즈 전문

가고파여행사
 201-802-0820

353 Broad Ave. Suite 203 Leonia, NJ 07605

종합건축 AAMP construction

주택, 상가, 무료 상담 및 견적, 면허, 보험소지
 골치 아픈 문제(건축허가, 누수, 배설, 담장, 데크, 미용, 외상, 주차,
 지하실, 방기리모델 등 건축 전반에 책임사임(기본 1년 보증)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성당 공사 10% DC)
732-964-9787
 email: aampconstruction@yahoo.com

HYUNDAI TOYOTA KIA
SANSONE AUTOMALL
 BEST CAR, BEST PRICE
Manny Kim 201-852-3232
 90-100 RT.1 Avenel NJ 07001

부활
 제 3주일
 2021년
 4월 18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 - 7 : 00 PM
 수 ~ 금 - 9 : 00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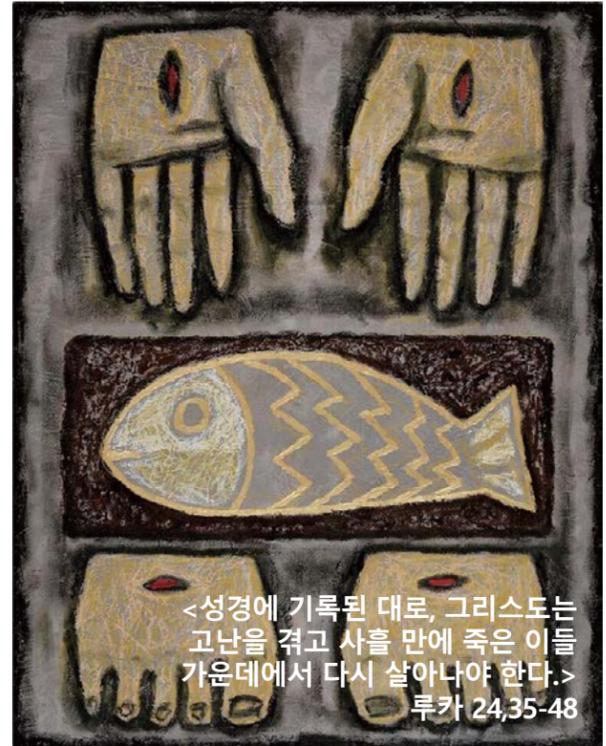
주일 (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 - 4 : 00 PM
 일요일 (영어) - 9 : 00 AM
 (한국어) - 11 : 30 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 Tel: 732-356-1037
 # Email: office@edisonkcc.org
 # 근무시간: 화~금 10am~3pm
 http://www.edisonkcc.org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의회장
 한상철 빈센시오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루카 24,35-48

<이번 주 전례 안내>

- # 제1독서 사도행전 3,13-15,17-19
- # 화답송 시편 42,4,7,9(◎ 7c)
- ◎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 # 제2독서 요한 1서 2,1-5ㄱ

- # 복음환호송 루카 24,32 참조
-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 # 복음 루카 24,35-48
-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주간 전례 말씀	제1독서/제2독서	복음 말씀
월요일 04/19/21	사도행전 6,8-15	요한 6,22-29
화요일 04/20/21	사도행전 7,51-8,1ㄱ	요한 6,30-35
수요일 04/21/21	사도행전 8,1ㄴ-8	요한 6,35-40
목요일 04/22/21	사도행전 8,26-40	요한 6,44-51
금요일 04/23/21	사도행전 9,1-20	요한 6,52-59
토요일 04/24/21	사도행전 9,31-42	요한 6,60ㄴ-69
일요일 04/25/21	사도행전 4,8-12	요한 10,11-18
	요한 1서 3,1-2	

미사지향

연미사

- 봉헌자

- 최자경(아네스) - 최정원(레지나)
- 정인규 - 가족
- 김익록(필로메나) - 김명성(스테파노)
- 오흥순(카타리나) - 가족, 홍순연(비안나)
- 이화자(마틸다) - 가족
- 추옥남(엘리사벳) - 황종성 가족
- 윤동순(마리아) - 이석중(스테파노) 가족
- 곽창진(스테파노) - 곽 루시아
- 안동방 - 곽 루시아
- 최규학(프란치스코), 최혜경(데레사) - 가족
- 정숙림(막달레나), 이종우(도밍고) - 가족

생미사

- 봉헌자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하건철(안토니오) - 하준석(마태오)
- 이길자(마리아) - 가족
- 한기숙 - 최정원(레지나)
- 김정은(아델라) - 최정원(레지나)
- 김민서(크리스티나), 장유신 가정 - 가족

교무금 납부 안내

서경호(3-4) 이종권(4-6) 이대우(3-4)
이창우(4) 정명숙(1-12) **합계:\$930**

주일 헌금 납부 안내

주일미사 참여 69명 **합계: \$673**

성당 교무금 및 헌금 납부 방법 안내

1. 우편으로 납부

분실위험으로 인해 체크만 가능하며, 납부하시는 분의 성함과 교무금, 주일헌금, 특별헌금을 각각 구분하여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Payable to OLM)

2. 현금으로 납부

- 1) 사제관에 개인적으로 오셔서 우편함에 넣어주시거나,
- 2) 구역장님/대리인이 수거하여 사제관 우체통에 넣어주실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미리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3) 봉투에는 납부하시는 분의 성함과 위에서 설명드린 납부 목적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Venmo

친구찾기로 "SBB-LEE" 찾으시고, 프로필에 성당 사진과 Namwoong Lee 이름 확인하신 후, 납부하시는 세대주 성함과 헌금 종류를 구분해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 사무장(732-258-5998)

공지사항

코로나 19 바이러스 관련 하여 모든 회의 및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필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은 단체장을 통해 전달해드립니다.

2차헌금 안내

- 4월 18일: 성당 유틸리티 비용 마련 2차 헌금.
- 4월 25일: Catholic Relief Services단체 지원 2차 헌금

견진성사 신청자 모집

-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 견진성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무실 또는 이서형(요안나) 선교분과장님께 연락바랍니다.

대형 매일미사책 구독 신청

- 기존 매일미사 책 보다 큰 사이즈인 "대형 매일미사"책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 문의: 사무장 (732-258-5998)

2021년 Bishop's Annual Appeal (Transformed by Christ Body and Blood Sent on Mission to Light a Fire in the Heart of the Church)

- 각 가정에서 교구청으로부터 받으신 Bishop's Annual Appeal봉투를 이용하여 직접 교구청으로 보내시거나 사무실로 전달하시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납부 <http://diometuchen.org/BAA>.
- 2021년 본당 할당금액은 \$35,000이며 4월 9일까지 약정된 금액은 \$19,595 (목표금액의 56%, 68명 참여)입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2020년 11월 29일 - 2021년 11월 27일)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로부터 성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와 주보 성인으로 모신 뉴저지 메이플우드 성당이 "순례 성당"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순례 미사 시간 및 장소: 5월 22일(토), 7월 24일(토), 9월25일(토) 11월 27일(토) 오후 3시 대성당
- 예약 신청 : 973-763-1170, CatholicMaplewood@yahoo.com

에디슨 성당 화상 영성강의

- 이남웅 스테파노 주임 신부님께서 코로나 시국 동안 에디슨 한인성당 공동체 교우분들을 위해 준비하시는 화상 영성 교육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교우분들께서 참여하셔서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자: 5월 1일 저녁 8시 - 9시 반
- 주제: 성모성월 (성모님의 영성)
- 강의방법: Zoom 화상 강의 (강의 접속링크는 구역장님들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라디오 미사 (주파수 FM 100.1MHz)

라디오 방송 미사에 참여하실 분은 성당 옆 큰 주차장의 지정된 지역에 주차 후 FM 100.1MHz로 맞추시고 미사를 청취하시면 됩니다. 미사 후 기다리시면 신부님께서 직접 차량을 방문하시어 성체분배를 해주십니다.

< 루카 복음 > 24,35-48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이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 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주교님 편지

그리스도 안에서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곧, 우리는 한 해의 가장 거룩한 시간인 성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성주간에 거행되는 전례를 통해, 그 안에서 듣고 함께 참여하는 "수난 복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환영을 받으며 성대하게 들어오시는 것을 목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며, 우리는 그분의 고통과 수난에 함께 참여 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시간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하느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 속에 이루어진 고통의 신비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각자 그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곧 그것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상황과 그 후유증으로 우리 사회는 이민족 기피 현상(Xenophobia)과 인종차별이라는 고통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종주의(Racism)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 인간의 존엄성과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또 그 누구도 우리가 만나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향한 미움의 마음에서 비롯된 배척과 공포, 두려움과 사랑의 부재를 견딜 수 없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다른 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모든 인격은 하느님 자녀의 모습을 지닙니다. 무엇을 믿는지 또는 어떤 삶을 사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또 피부색이 어떤지 하는 것은 하느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라는 부분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자녀 각자는 존엄하며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죠.

슬프게도, 우리는 모두 점점 커져만 가는 동양인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향한 분열과 미움 그리고 "희생양 만들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를 향한 혐오 범죄가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거의 15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점점 많은 연구들은 아시아계 미국인들과 다른 인종 그리고 소수민족들에 대한 점점 심해지는 육체적 공격과 언어 폭력 그리고 기피하기와 차별의 모습을 꼬집고 있습니다.

이런 혐오와 폭력에 저항해,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 안에서 주님께로 회개하는 삶을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바로 지난해 6월, 예수성심성월 매주 각 인종이 이 나라 안에서 조화와 평화 그리고 정의와 치유를 이루도록 기도하며 지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종주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각자의 결단과 행동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사회 전체 차원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며,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구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 그리고 언어가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의 공동체와 함께 하는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 안에 10개의 민족들 가운데 6개의 민족들이 가톨릭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양한 민족들과 교회 공동체가 겪는 고통과 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그리고 불평등이 없어지기를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된 교구 가족으로 나아가서는 한 가정의 형제와 자매로서, 우리는 인종주의의 죄악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골고타로 향하는 주님을 따르며, 가장 거룩한 시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각자가 질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 합니다. 우리가 지는 이 십자가는 인종간의 조화, 평화, 정의 그리고 치유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하느님께서 알려 주셨듯이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부디 이 거룩한 시간이 여러분 각자를 위대한 믿음, 용기 그리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기를 기도 했으면 합니다..

저는 인종주의의 채찍을 견뎌 나오는 모든 이들과 기도로 연대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아시아계 미국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말입니다. 저의 기도와 마음이 그들과 함께 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들과 함께 일치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일치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해 주어진 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희망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가족들에 대한 걱정과 사랑으로 지냅니다. 우리 함께 모쪼록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요, 당신의 모상으로 바라 보시듯 우리 역시 서로를 같은 자녀요, 형제요 자매로 바라 볼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메타천 교구장 제임스 체키오 드림.